

2026년 9월 16일 | 산업분석_Industry In-depth

Overweight

Top Pick 및 관심종목

*CP 2026년 9월 15일

RFHIC(218410)

BUY | TP 150,000원 | CP 49,350원

KMW(032500)

BUY | TP 70,000원 | CP 16,070원

솔리드(050890)

BUY | TP 30,000원 | CP 8,750원

LIG아큐버(073490)

BUY | TP 80,000원 | CP 29,600원

오이솔루션(138080)

BUY | TP 60,000원 | CP 23,650원

에치에프알(230240)

BUY | TP 50,000원 | CP 11,410원

NOKIA(NOKIA FH)

NA | TP NA | CP 8.59 EUR

Ericsson(ERICB SS)

NA | TP NA | CP 98.04 SEK

무선통신장비

2027년 쇼티지 발생으로 높은 Multiple 형성 예상

미국 이미 대규모 투자 예고, AI 기지국이 IT 시장 이끌 것

투자자들의 신뢰가 높지 않지만 미국은 이미 2026년 7월 OBBBA 법안 제정을 통해 2027~2029년 800MHz에 달하는 대규모 주파수 경매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어 2026년 6월 AWS 3밴드 주파수 경매에 이어 2027년 4월 어퍼 C밴드 주파수 경매를 예고하였다. 피지컬 AI 육성 목적인데 미국 통신사 5G/6G 서비스 확장을 위한 기반이 마련된 것이다. 이런 가운데 엔비디아가 AI 데이터센터 다음으로 AI 기지국을 새로운 먹거리로 밀기 시작하였다. GPU 매출을 늘리기 위한 것인데 과거 글로벌 IT로 인해 각국 규제 기관들이 움직인 사례가 많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 신규 주파수 투자 명분 하에 5G SA/6G로 진화하면서 통신과 AI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AI 기지국 보편화가 예상된다. AI 기지국 확산을 위해 5G SA/6G 투자가 본격화될 전망이며 5G SA 킬러 서비스는 이전에 언급한대로 피지컬 AI와 양자암호통신이 될 것이란 판단이다.

미국의 대 중국 장비/부품 규제로 2027년 공급 부족 사태 벌어질 전망

시장 확산 추세와는 달리 무선통신장비 업체 수는 지난 20년간 급감하였다. 성수기가 2년/비수기가 5년인 업종 특성상 자금 문제가 컸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SI(제안업체) 및 아웃소싱업체들이 급성장한 반면 미국/유럽 업체들의 위상이 크게 약화되었으며 삼성/후지프의 위상은 유지되는 상황을 보였다. 그런데 수급 상황을 보면 2027년엔 공급 부족 이슈가 커질 전망이다. M&A를 거쳐 상위 업체로 합쳐지는 양상이 지속되면서 글로벌 SI는 물론 아웃소싱업체들의 수도 급감한 데다가 친미 국가들의 중국산 장비/부품 제재 양상이 강화되고 있어서다. 미국/중국이 양립하는 유선과 달리 무선 통신장비 시장은 중국/유럽/한국/일본 업체들이 경쟁하는 상황이다. 그런데 중국이 배제되다 보니 공급은 더 위축될 수 밖에 없다. 최근 미국의 중국산 제재로 광모듈 공급 대란이 벌어졌고 이에 중국산 규제 완화 필요 요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국내 아웃소싱 무선 통신장비 업체들의 수혜가 예상된다.

과거 경험상 상상의 Multiple 형성 전망, 하반기 무선장비주 적극 매수해야

피지컬 AI 경쟁 상황을 감안하면 2027년엔 미국과 더불어 국내도 주파수 경매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주파수 총량을 비교하면 명분이 크다. 그런데 만약 2027년 무선통신장비 공급 부족이 현실화된다면 예상보다 높은 Multiple 형성이 예상된다. LTE/5G 도입 쇼티지 발생 당시 사례로 보면 그렇다. 과거 무선 통신장비 업종 시가총액은 향후 3년 내 도달 가능한 연간 최대 영업이익과 성장성을 기반으로 형성된 바 있다. 2027~2029년 연간 최대 영업이익이 KMW 3,000억원/RFHIC 1,500억원에 달한다고 가정하면 두 종목 모두 향후 2년 내 시가 총액 10조원 도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판단이다. RFHIC/KMW/솔리드/HFR/LIG아큐버/오이솔루션 적극 매수를 추천한다.



Analyst 김홍식 prol1@hanafn.com
RA 이상훈 sanghunlee0121@hanafn.com